



영화, 알고 봅시다

박진숙

0. 여는 말 : 영화는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영화를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꼭 먹을 것을 챙긴다. 팝콘은 기본이고, 콜라에 냄새나는 오징어까지... 부스럭 부스럭 거리면서 신나게 먹다가 전화가 오면 아무렇지 않게 받는다. “응, 나 영화 보는데...” 이런 사람들과 영화를 같이 보는 일은 그야말로 고역이다. 그들에게 영화는 어떤 용도일까? 일주일 간의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 아니면 데이트 아이템 중의 하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깨부수는 영화를 좋아한다. 소위 홍콩 느와르를 즐기는 이들은 성룡 영화라면 사족을 못쓴다.

우리는 어떤 부류인가? 우리에게 영화를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마 모르고는 몰라도, “나는 절대 위의 부류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자부할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팔아 넘길 수만은 없다. 우리 문화 전반에는 아직은 영화를 ‘분석해야할, 진지하게 대해야할 무엇’으로 보는 분위기보다는 ‘단순히 즐기는 대상’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전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영화를 ‘알고’ 보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이끌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영화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먼저, 영화가 발전해 온 과정을 좀 알아야 할 것 같다. 영화를 비평하는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두면 좋겠고, 또 간단하게나마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과 영화 기법들을 일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1. 영화의 역사 : 활동 사진에서 CGI(Computer Graphic Image)까지

영화가 발전해 온 역사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보자.

1895. 12. 28 - 루미에르Lumière 형제가 처음으로 영화 상영, 10 개의 단편들.

→ 사실주의 영화로 발전

1986 - 멜리에즈Méliès가 트릭을 사용한 영화 시도.

→ 표현주의 영화로 발전

1902-1905 - 빠떼Pathé와 고몽Gaumont이 필름회사를 세우면서, 영화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1914 - 그리피스D.W. Griffith가 『국가의 탄생』을 만듦으로써, 영화를 제 7의 예술에 한층 다가 가게 함. 다양한 관점을 시도하고 행동을 끊어내기 시작함.

1918-1920 - 소련에서 레닌이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영화를 장려. → 형식주의 영화 발전 : 쿨레쇼프Koulechov(쿨레쇼프 효과), 에이젠슈타인Eisenstein(몽타주의 원리 발견, 『전함 포템킨』(1925))

1920년대 - 독일에서는 표현주의 영화가 발전함. 프리츠 랑Fritz Lang(『메트로폴리스1926』), 무르나우Murnau(『노스페라투』(1922)). 미국에서는 슬랩스틱 코미디 형식의 영화가 유행, 찰리 채플린 등장.

1929 - 최초의 유성 영화 『재즈 싱어』 등장. 아직은 이미지와 사운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1930년대 이후 -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의 공장화. 스타시스템의 본격적인 가동. 5개의 메이저 영화사(RKO, Metro Goldwin Mayer, Paramount, Watner-Bros, Twenty Century-Fox)와 3개의 마이너 영화사(Universal, Columbia, United Artists) 등장.

1945-1950 - 2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의 독재에 반하는 네오-리얼리즘 영화 등장. 비스콘티Visconti, 로셀리니Rossellini 등이 주로 활동.

1950-1960년대 - 프랑스에서 누벨 바그Nouvelle Vague가 일어남. 평론가 그룹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기 시작.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거리로 진출(caméra à l'épaule). 트뤼포Truffaut, 고다르Godard, 샤브롤Chabrol, 리베뜨Rivette 등이 주로 활동.

1970년대 - 영화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시기, 영화 산업 저조.

1980-1990년대 - 물질주의와 자아에 대한 성찰의 시기, 세대 개념 등장, 영화가 사람들의 일상 생활로 쉽게 침투하기 시작, 텔레비전과의 공조.

미래의 영화 - 새 영화가 극장에서보다 인터넷에 먼저 소개됨. CGI를 이용한 가상 현실의 영화들 다수 등장.

2. 영화를 비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팀 비워터/토마스 소빅 지음, 이용관 외 옮김, 『영화 비평의 이해』 참조)

영화를 비평하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나뉘어 진다. 텍스트적 방법과 텍스트적·컨텍스트적 방법, 그리고 컨텍스트적 방법이 그것인데, 각각을 다시 세분하면 7 가지가 된다. 텍스트적 방법에는 저널리즘적 방법과 휴머니즘적 방법이 있고, 텍스트적·컨텍스트적 방법에는 작가주의적 방법과 장르적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컨텍스트적 방법에는 사회과학적 방법과 역사적 방법, 이데올로기적/ 이론적 방법이 있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텍스트적 방법〉 - 각각의 영화들에 대한 설명과 분석

(1). 저널리즘적 방법 - 대중을 위한 영화 평론 : 직업 저널리스트들의 비평, 오락 잡지 등에 실리는 저널리즘 비평

(2). 휴머니즘적 방법 - 영화에 대한 전통적인 미학적 반응들 : 이미 본 영화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반영들, 도덕적 철학적 가치들, 문학적 가치들(주제와 인물의 추구), 직관적 해석

Ⅱ. 텍스트적·컨텍스트적 방법 - 일단의 영화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별 내러티브 영화들을 분석함

(3). 작가주의적 방법 - 작가와 그의 영화의 분석

(4). 장르적 방법 - 공식적인 영화들의 분석 : 영화 장르의 미학적 평가, 사회적 반영으로서의 장르 비평, 헐리우드 체계의 패러다임인 장르

Ⅲ. 컨텍스트적 방법 - 영화와 프레임 바깥 세계의 관계에 대한 검토

(5). 사회과학적 방법 - 사회적 가공물로서의 영화 : 관객의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구조로서의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6). 역사적 방법 - 과거의 검토 : 영화사와 기술의 영향, 현대 영화사와 관련된 문제들

(7). 이데올로기적/ 이론적 방법 - 더 깊은 의미들을 밝히기 위한 기본 원리의 적용 : 형식주의론, 리얼리즘론, 기호학적 실천, 구조주의적 실천, 마르크스주의적 실천, 페미니즘적 실천, 신프로이트적 실천

3. 영화 제작 과정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대체로 3 단계를 거치게 된다.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이 그것인데,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주로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된다. 이야기를 어떤 화법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어떤 호흡으로 가져갈 것인지,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등을 이 단계에서 결정하게 되며, 그에 따른 예산 배분도 함께 하게 된다. 이런 예비 작업을 바탕으로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실제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45회 촬영을 기준으로 잡는다. 마지막으로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이미 찍은 필름으로 극장에 돌릴 프린트를 만들기까지의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Avid편집 → 옵티칼 및 커팅(CGI 작업을 위한 커팅) ^{대사} → ^{녹음} 네가 필름 → 텔레 시네 → 믹싱 → 사운드 현상 → 프린트.

4. 다양한 영화 기법들

김성수나 이명세 같은 감독을 보통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른다. 스타일을 우리말로 옮기자면 대충 문체 정도가 되니까, 스타일리스트를 우리말로 하면 '문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문체를 구사한다는 말인가? 단순히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별로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사실, 문체가 없는 작품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희의 그림과 모네의 그림을 구별할 줄 안다. 그리고, 류시화의 시를 읽을 때와 단지 일보를 읽을 때 다른 느낌을 받는다. 이렇듯, 각각의 작품은 그것만의 고유한 문체, 즉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화가는 나름대로의 붓터치 방식을 고집하고, 작가는 자기만의 독보적인 어투를 갖추으로써 자신의 작품 세계를 형성한다.

그러면,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자. 영화에서는 어떻게 문체를 만들어내는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

는 것이 ‘샷shot’이다. 샷은 영화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씬이 되고, 씬들이 모여서 다시 씨퀀스가 된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샷을 어떻게 구성해서 나열하는가가 영화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하겠다.

샷의 종류(별지의 그림 참조)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3 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다. 클로즈업과 미디엄 샷, 풀샷이 그것인데, 이렇게 샷을 나누는 기준은 ‘인물이 화면 안에 어느 정도 크기로 비추는가’이다. 또한, 같은 크기로 화면에 비춘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앵글)에서 비추느냐에 따라 공중 샷, 아이 레벨 샷, 양각, 부각 등으로 나누고, 인물과 카메라 간의 거리에 따라, 투 샷, 마스터 샷, 롱 샷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각각의 샷을 구성한 후에 그것들을 배열하는 방법-몽타쥬, 편집-도 감독의 문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독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샷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샷을 즐겨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의 테오 앙겔로풀로스나 우리나라의 임권택 같은 감독은 주로 롱샷(롱테이크)으로 많이 찍는다.

5. 그러면, 우리는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까지 영화의 역사, 비평 방법, 영화 기법들을 살펴 보았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했을 때, 영화를 보는 눈이 보는 높아져야 할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 나름의 기준 내지는 관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평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그 방법대로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 서부 영화 같은 영화는 전형적인 ‘웨스턴 무비’라는 장르에 속하니까 이 장르의 규칙들-소위 문법-을 알아둔 후에, 자신이 선택한 영화가 얼마나 그 규칙들에 잘 들어맞는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그런 일탈로 인해 어떤 의외의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찾아보는 작업은 꽤 흥미롭다. 홍콩 느와르도 마찬가지로 장르적 분석 방법이 유효하다.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성 감독들의 영화-예를 들어 제인 캠피온-에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 분야에 관해 추천작을 꼽으라면, 『바그다드 카페』, 『바운드』, 『언어학』 등을 들 수 있다. 꼭 페미니즘을 표방한 영화가 아니라도, 영화에서 여성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꽤 의미있는 작업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모두 빌려다가 집중적으로 보고나서, 그 감독이 즐겨 사용하는 영화 기법들이 무엇인지 끄집어내는 것도 재미있다. 마틴 스콜세지나 브라이언 드 팔마, 코엔 형제, 아니면 우디 알렌도 괜찮고,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잉그마르 베르만이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스텔리 큐브릭, 페데리코 펠리니 같은 소위 위대한 감독들의 영화에 감히 손대는 것도 용기 있는 일이다.

비디오 가게에 가서 가장 쉽게 영화를 고르는 방법은 ‘특선’이나 ‘추천작’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영화를 집는 것이다. 보통 이런 영화들은 어느어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이 상을 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 영화가 어떤 점에서 상받을만한 가치가 있나?’를 나름대로 평가해 보는 것도 좋겠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영화는 절대 보면 안 돼!'라는 식의 태도는 좋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어차피 '죄많은 이 세상'에서 산다. 온실 속에만 자라는 화초처럼, 세상으로부터 눈과 귀를 가리고 살 수는 없다는 말이다. 볼 것 보고, 들을 것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물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도 선행·병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문화전략위원회가 엮어낸 책, 『대중 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에서 유재희 씨가 '생각해 봅시다'라고 제안한 몇 가지 질문들을 실으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 (1) 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좋은 혹은 나쁜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 베스트 5를 선정해 봅시다. 그 영화들을 선택하는 데 자신이 적용한 특정한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또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기독교의 비평 기준은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 (3) 기독교적 영화란 무엇인지 각자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봅시다.